



꿈과 희망, 사랑과 열정이 있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학교보건소식

제 2022-57호

발행인: 호남제일고등학교장

편집인: 보건교사

발행일: 2022년 겨울방학호

추운 날씨로 실내 생활시간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독감 및 코로나19 등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 수시로 환기하고 가습기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겉옷이나 목도리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기 등 세심한 관리로 건강한 겨울방학 되시기 바랍니다.

감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감기에 걸렸을 때는 목욕하지 않는 것이 좋다? (X)

“추운데 목욕하면 감기 더 안 나아!” 보통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목욕을 하면 감기가 더 심해질 거라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감기 때문에 지친 체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 마스크는 ‘전염 예방’ 을 막는 데에만 효과적이다? (X)

많은 분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마스크는 감기의 전염을 막는데 도움을 주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으로 인해 습기가 생겨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 땀을 흘리면 감기가 낫는다? (X)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감기가 나은 듯한 느낌이 든다. 이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완화된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기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땀을 내려고 사우나에 가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땀을 흘리면 탈수와 기력저하로 인해 컨디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감기 치료제는 없다? (O)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그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는다. 감기를 낫게 하는 치료제는 없다. 우리가 먹는 감기약들은 직접적으로 감기를 유발한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 아니라 발현 증상을 완화 시키는 약이다. 때문에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먹으면 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

“세계 에이즈의 날”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책을 전달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레드리본은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지하며,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에이즈의 상징물로서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와 그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지지의 표현입니다.

🌱 에이즈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으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라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 감염되는 질병으로 인체 면역체계를 손상시켜 우리 몸이 수많은 감염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게 만들어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며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검사를 받기 전에는 감염자인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염경로 및 예방

HIV 감염 경로는 명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99% 이상이 성관계로 감염되므로 올바른 콘돔 사용을 통한 안전한 성관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감염된
혈액 수혈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사용



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

에이즈는 침·땀·모기·악수·식사·포옹·입맞춤 등 일상생활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과 에이즈

세계적으로 가장 에이즈 확산에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최근 청소년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마약의 사용,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쉽게 성관계를 하는 것은 에이즈에 노출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겨울철 체온 높이는 건강법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에는 체온도 낮아지게 되고 감기 등의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세포의 활동도 줄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체온이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 추위를 이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옷 입기로 체온을 유지해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체온을 외부로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쾌적하게 입은 상태에서 피부 온도는 약 32℃. 이 체온을 유지하려면 중력에 의해 **혈액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는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



윗옷을 두껍게 입는 것보다 양말이나 내복, 바지 등을 제대로 챙겨 입으면 체온이 2℃ 더 높아집니다. 머플러나 장갑 등으로 우리 몸에서 체온이 빠져나갈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목욕으로 따뜻하게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목욕물 온도는 40℃ 정도. 따뜻한 물에 몸이나 발을 푹 담그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안으로부터 따뜻하게

체온을 낮추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체온을 높이는 음식도 있습니다. 생강, 파, 홍차, 흑설탕, 생선, 고기 등은 체온을 높이는 음식입니다. 또한 **야외 활동 시 초콜릿 등을 준비 후 먹으면 체온을 올려 조금 덜 춥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요

추워지면 우리 몸은 움츠러들고 움직이기 싫어지면서 체온도 덩달아 내려갑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열이 발산되면서 따뜻해집니다.

청소년기 신체활동이 중요해요

청소년기는 성장이 가장 왕성한 때이고 체력적으로 완성되는 단계다. 청소년기의 높은 체력 수준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을 지탱해주는 활력소이자 건강의 근간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에 최대한 체력을 향상 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충분한 운동은 근육 및 신경계를 발달시킨다. 신체를 성장·성숙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정신적으로는 긍정적 사고를 키워준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청소년기 권장 운동량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의 근력운동을 하는 것을 권한다. 그러나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2016년 세계 146개국 11~17세 남녀 학생의 신체 활동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81.10%가 WHO 권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한국은 주요국 운동부족 학생 비율 1위를 차지하여 한국 청소년의 운동부족이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청소년기 신체활동, 이렇게 해봐요!

- 아침 일찍 일어나 걷거나 자전거로 등 하교하기
- 수업 후, 쉬는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스트레칭 하기
- 점심시간에 활동적인 놀이 참여하기
- 방과 후 스포츠클럽 참여하기
- 텔레비전 시청 또는 컴퓨터 이용 시 스트레칭을 하거나 선 자세로 시청하기
- 주말에 가족과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하며 여가 시간 보내기
- 심부름·청소·세차 등 가정에서의 생활 활동에 자주 참여하기
-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를 실내보다는 야외로 정해 가능한 한 몸을 많이 움직이기
- 운동이나 스포츠 종목 중 하나를 나만의 취미로 만들기

주요 학교 감염병과 등교중지 기간

병명	등원중지 기간
코로나19	7일
유행성 이하선염	증상 발생 3일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
인플루엔자 (독감)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소견서에 격리기간 까지인정) 5일까지 인정결석기간이나 이후에도 열이 나서 등원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추가 제출
홍역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풍진	발진이 나타난 후 7일까지
수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A형 간염	황달 증상 이후 7일간 (황달증상 없으면 입원일부터 7일간)
결핵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노로바이러스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수족구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